

# 2021년 7월 국내외 위성 관련 산업 동향

## < 목 차 >

### I . 위성 관련 소식

1. '최강' NASA·ESA 기후변화 대처 위해 손잡았다

(원문) 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714080500009?section=search>

2. 스페이스X발사체에韓위성 · · · KAI-머스크손잡았다

(원문) <https://www.hellodd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3557>

3. 대한항공, 수직 발사한 나로호 방식 대신 공중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 도전장

(원문) <https://www.dongascience.com/news.php?idx=48110>

4. 스페이스X, 화성 너머 목성 위성 '유로파' 탐사 길 연다

(원문) <https://www.dongascience.com/news.php?idx=48238>

### II . 위성 관련 보도자료

1. 과기정통부, 국가 우주정책의 싱크탱크 구축 ..... 2
2. 『위성통신 포럼』 창립 총회 개최 ..... 4

## II. 보도자료

### 1 과기정통부, 국가 우주정책의 싱크탱크 구축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'21. 7. 21.

- **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신설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,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가 파견으로 우주정책 역량 결집**
  -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·안보·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되는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이 설치됨
  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7월 20일(화) 우주정책 수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「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」의 유치기관과 센터를 이끌 센터장을 선정하였음
    - 한국연구재단의 공모 절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분야의 대표 정책연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을 유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, 초대 센터장은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 조황희 박사를 선정하였음
  - 우주개발은 우주과학, 우주탐사를 넘어 활용 범위를 확장 중임
    - 위성을 통한 기상예측,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, 해양생태계 관리, 국토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,
    - 최근에는 정찰위성, 우주감시 등 안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,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우주인터넷, 우주관광 등의 실현과 함께 미래 유망기술로도 기대받고 있음
  -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·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,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

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,  
‘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’ 설립을 추진하였음

- 해외 선진국들도 국가 우주 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해 우주분야 전문가  
집단의 지원을 받고 있음

\* (미국) 우주안보재단(SWF) 등 / (유럽) 유럽우주정책연구소(ESPI), 유럽우주법센터(ECSL) 등  
/ (일본) 일본우주포럼(JSF) 등 / (프랑스) 전략연구재단(FRS) 등

○ 앞으로 ‘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’는 ‘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’ 등 정부의  
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, ‘우주산업 육성 전략’ 마련 등  
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임

- 민수-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,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국가 우주개발  
추진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할을 할 예정임

○ 국가 우주 정책 연구센터에는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항공  
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,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함

- 다양한 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 
확보를 통해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임

○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국장은 “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 
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도전적이면서도 치밀한 정책이 필요” 하다며,

- “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 
위한 연구개발·안보·우주외교·우주산업 분야 등의 내실있는 정책을  
마련하겠다.” 고 밝힘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'21. 7. 22.

## □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6G 시대 미래 초공간 네트워크의 핵심인 지상-위성 통신망 통합에 대비하여 위성통신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민관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『위성통신 포럼』이 출범했다고 밝힘
    - 『위성통신 포럼』 창립총회는 7월 21일 수요일 오후 창립준비위원회 (위원장: 한영남 KAIST 교수) 주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됨
  - 위성통신 포럼은 7월 21일 현재 KTSat, 한국항공우주산업, 한화시스템, LIG넥스원, AP위성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, 대표 의장사로 KTSat이 선임됨
    - 또한, 이 날 행사에서는 포럼 집행위원장으로 고려대 강충구 교수가 선임되었으며, 기술·산업·주파수·대외협력 4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\*도 선임됨
- \* <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>
- 기술 :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변우진 본부장 / 산업 :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창현 부문장 / 주파수 : 흥인기 경희대 교수 / 대외협력 : 김재현 아주대 교수
- 포럼은 앞으로 기업, 대학, 출연연 등 위성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연구보고서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전문가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,
    - 기술·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, 국민 공감대 확산 등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계획임

-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포럼 창립행사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“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에 이어 다가올 6G 시대에도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공간 통신에 필수적인 위성통신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.” 고 강조하면서,
  - “한미정상회담 후속으로 6G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,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창립하는 위성통신 포럼이 그 중심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.” 고 밝혔다
  - 한편,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“우주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지금,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기업들이 위성통신 포럼에 함께 한다면 우주시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” 고 하면서 “위성통신 포럼이 역할을 다하여 우주시대를 같이 헤쳐 나가자” 고 당부하였음